

보도자료 2013. 3. 3.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기관	법 원 도 서 관
	담당자	조사심의관 남선미 (☎3480-1556) 자료편찬과 정지우 (☎3480-1571)
	공보관실 ☎ 3480-1451	

법원도서관, ‘법원 맞춤법 자료집’ 전정판 발간

-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법률 문장 작성에 앞장서온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은 2013년 3월 ‘법원 맞춤법 자료집’ 전정판을 발간하였음
- 법원도서관은 1997년 맞춤법을 소개하고 법률 문장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한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발간한 이래 2006년 개정판을 발간하였는데, 7년 만에 전정판을 내게 된 것임
- 법원도서관은 전정판 발간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판결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참고하였고, 또한 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획 단계부터 국립국어원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음
- 법원도서관은 판결서에 나타난,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틀리기 쉬운 표현을 소개하고, 한문 투의 문어체나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음
- 특히 판결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가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독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문장의 군살을 빼고 짧게 문장을 맺는 방법을 소개함
- 실제 판결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료집을 발간함에 따라 자료집 구성에

서도 종전과 차별화를 두었음. 자료집은 크게 ‘찾아보기’ 편과 ‘교정사례’ 편으로 구성되는데, ‘찾아보기’ 편에서는 부호, 가나다 順으로 용례를 제시하고 해당 내용이 소개된 ‘교정사례’ 페이지를 소개함으로써 검색과 이해의 편의를 높였으며, ‘교정사례’ 편에서는 설명과 함께 교정 전과 후를 소개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음

- 법원도서관은 앞으로도 읽기 쉬운 판결서 작성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국민들이 판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별첨: 자료집의 구성

오류 유형

주요 사례 -끝-

〈자료집의 구성〉

1. 제1부 ‘유형별 찾아보기’ 편

제1부는 제2부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 문장 바로쓰기’ 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서, 쉽게 한글맞춤법 등을 확인하고 또 제2부의 해당 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오류 유형: 제1부는 오류 유형에 따라 I. ‘한글맞춤법’ 편, II. ‘띄어쓰기’ 편, III. ‘낱말’ 편, IV. ‘자연스러운 표현’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세로 구성: 가.의 오류 유형마다 단위 ⇒ 문장 부호 ⇒ 숫자 ⇒ ‘가나다’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가로 구성: ① ‘해당 용어’, ② ‘교정 전 표현’, ③ ‘교정 후 표현’, ④ 제2부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 문장 바로쓰기’의 해당 페이지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해당 용어’는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맞춤법’ 편과 ‘띄어쓰기’ 편에서는 바른 표현을, ‘낱말’ 편과 ‘자연스러운 표현’ 편에서는 옳지 않은 표현을 용어로 선정하였습니다.

예) ‘한글맞춤법’ 편에서 ‘낙원’의 경우 옳지 않은 ‘락원’ 대신 바른 표현인 ‘낙원’을 용어로 선정. ‘낱말’ 편에서 바른 표현인 ‘이른바’ 대신 옳지 않은 ‘소위’를 용어로 선정.

2. 제2부 ‘사례로 알아보는 법률 문장 바로쓰기’ 편

‘교정 전’과 ‘교정 후’ 표현을 소개하면서 교정 내용에 관한 해설, 예, 참고 사항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 ‘5초 문법’에서는 틀리기 쉬운 용어 사용법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3. ‘부록’ 편

법령 이름 표시, 문헌이나 판례 등의 인용법 등을 소개한 ‘법률 문장의 관행과 용례’, ‘판결서에 나타난 외래어 교열 사례’, ‘문장 부호’를 소개하였습니다.

〈오류 유형〉

1. 한글맞춤법 - 문장부호,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표현 등

2. 띄어쓰기 - 띄어쓰기

3. 낱말 - 단어 용법이 잘못된 경우, 외래어, 순화어 등

※ ‘한글맞춤법’과 ‘낱말’은 외래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습니다.

가. ‘한글맞춤법’: 오탈자와 같이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예) 바른 표현인 ‘진입을 삼가 달라’ 대신 ‘진입을 삼가해 달라’라고 잘못 표현한 때

나. ‘낱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 등을 용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예) 바른 표현인 ‘형식을 빌려’ 대신 ‘형식을 빌어’로 표현한 경우와 같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빌다’와 ‘빌리다’의 용법을 혼동하여 잘못 표현한 때

4. 자연스러운 표현 - 불명확한 표현, 어색한 표현, 불필요한 표현, 번역 투 표현, 긴 문장, 호응, 시제, 사동 등

※ ‘낱말’과 ‘자연스러운 표현’ 모두 번역 투 표현을 다루고 있는데, ‘낱말’에서는 주로 명사 등 ‘단어’에 중점을 두어 소개하였고, ‘자연스러운 표현’에서는 조사 용법이나 문장 등 ‘표현’에 중점을 두어 소개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1. 판결서 속 일제의 잔재 지우기

- ‘땃’, ‘내지’는 ‘와/과’, ‘또는/~나’로 순화하여야 한다.
- ‘~법 제○조에 의하여’에서 ‘~에 의하여’는 ‘~에 따라’ 등으로 순화하는 것이 옳다.
- ‘~에 있어서’는 ‘~에서’, ‘~에’, ‘~로서’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 판결서에 자주 등장하는 ‘~에 관하여’, ‘~에 대하여’는 ‘~에’, ‘~에는’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피고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피고에게’라고 표현해야 한다.

2. 판결서 속 군살 빼기

아래 표현은 불필요한 것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하여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용례를 소개하였다.

- ‘~라고 할 것이다’ → ‘이다’
- ‘~라 함은’ → ‘~란’
- ‘~라고 봄이 상당하다’ → ‘~라고 보는 것이 알맞다’ 또는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 밖에 판결서에 ‘각’이나 ‘~적’과 같이 불필요한 표현이 사용되면서 자연스러운 판결서 흐름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바른 표현을 소개하였다.

3. 나뉘쓰기

길게 작성된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면, 복잡한 수식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같은 주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어를 생략하거나 피동형태의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경우 복잡한 수식구조를 해

아려야 하고,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문장을 읽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피동형태를 사용하면서 문장이 어색해진 경우도 있었다. 법원도서관은 이와 같은 문장구조를 분석하여 문장을 될 수 있는 대로 나눠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용례를 소개하였다.

4. 판결서에 나타난 외래어 교열 사례

- buffet(프랑스어) : ‘부페’ → ‘뷔페’
- fighting : ‘화이팅’ → ‘파이팅’
- system : ‘씨스템’ → ‘시스템’
- workshop : ‘워크샵’ → ‘워크숍’

5. 기타 표현 사례

- 감안(勘案) → 고려, 생각, 참작
- 굴삭기 → 굴착기
- 내역(內譯) → 명세
- 네비게이션 → 내비게이션
- 다액 → 많은 금액, 많은 돈, 큰돈, 큰 액수
- 수회 → 여러 차례
- 일시적으로 → 한때
- 자(者) → 사람
- 흠결 → 부족, 흠, 모자람
- 자인(自認)하다 → 스스로 인정하다
- 안절부절하다 → 안절부절못하다
- 적치(積置)하다 → 쌓아 두다, 쌓아 놓다

○ 산입하다 → 포함하다, 셈(계산)에 넣다